

전통시장 재생사업을 위한 활성화 방안고찰

- 용문전통시장 상인을 중심으로 -

이나희 · 배광진 · 장용준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I. 서론

과거 전통시장은 지역사회의 경제를 이끌어가는 중심 역할을 해왔지만, 현재 이를 대체하는 편의점, 대형마트 등의 유통 형태 뿐 아니라, 온라인 유통이 활성화됨에 따라 전통시장의 기능과 역할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전통시장의 역할은 물건을 사고파는 경제적 공간이기도 하지만, 상인과 주민들 간의 만남, 소통이 이루어지며, '정'이라는 한국 고유의 정서를 느낄 수 있는 사회문화적 공간임과 동시에 오랜 시간 시장을 지켜온 상인들 개개인의 헤리티지(heritage)가 담긴 장소성을 지닌 곳이기도 하다.

때문에 '전통시장의 활성화'는 지역사회의 경제성 향상은 물론 원도심의 정체성 회복과 공동체 결속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중심 공간이라는 개념으로 현재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도시 재생사업의 핵심사업으로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는 서울시 용산구 효창원로에 위치한 용문시장을 대상으로 하여, 오랜 시간 그 자리를 지켜온 상인과 최근 장사를 시작한 청년상인을 중심으로 인터뷰를 진행함과 동시에 상인들의 이야기를 그들이 오랫동안 사용해온 '물건'을 통해 풀어내고자 하여 상인 개개인의 헤리티지를 담고 있는 '물건'으로 구성된 아카이브 사진 전시를 시장 한복판에서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상인들이 시장의 어떤 모습을 가장 많이 그리며 원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향후 시행될 전통시장 재생사업 실시 시 활용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자 함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II. 용문시장의 역사와 현황

용문전통시장은 서울시 용산구 효창원로(용문동)에 위치하며, 효창동, 원효로 2동, 원효로 1동과 접해있는 용산구의 유일한 전통시장으로 1948년부터 지금까지 약 70년 동안 용문동 일대의 주민들의 밥상을 책임지고 있는 곳이다. 시장 상인들에 의하면 80년대 용문전통시장과 함께 크게 조성되어 있던 청과물 시장이 가락시장으로 옮겨가면서 손님들의 발길은 점차 줄어들고 시장은 활력은 잃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전통시장으로써의 옛 모습과 정서, 주민들의 일상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용문시장 뒤편으로는 과거 청과물 시장이었던 공간이 남아있다. 이곳의 건물들은 허물어져 가고 있으며, 빈 가게들은 대부분 다른 가게의 창고로 쓰이거나 문이 잠겨 있어 시장이 가장 붐비는 시간인 3시~5시 사이에도 손님들의 왕래가 아주 적다.

현재 용문시장은 예전의 활기를 되찾기 위하여 상인회를 결성하여 상인들의 교류와 화합을 위한 행사를 벌이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상인회와 숙명여대 캠퍼스타운이 함께 진행하는 '용문 문화의 거리 축제', '용문전통시장 해님달님 축제' 등 문화축제를 열고 있는데, 이와 같은 행사는 앞서 말한 시장의 뒤편에서 개최하여 용문시장만의 고유한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용문시장은 평일 오전 시간대는 시장 판매 물품을 배달하는 사람들로 북적였으며, 손님들이 시장을 가장 많이 방문하는 시간대는 평일 3시~5시 사이였다. 주말은 전체적으로 한산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가족들과 외식을 주로 하므로 장을 보기 위해 시장을 찾는 손님이 많지 않다는 상인들의 의견이 있었다. 때문에 주말에는 영업을 하지 않는 가게가 많이 늘어 일주일 중 가장 한산하였다.

III. 연구 방법 및 연구 내용

본 논문의 연구 방법은 관찰, 인터뷰, 아카이브전시를 통한 1:1 심층면접법 등을 사용하여 실시하였다.

자료수집은 2019년 4월부터 6월까지 매주 시장을 방문하여 실시하였다.

본 논문의 구체적인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용문전통시장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행태 및 시장의 공간구조 등을 관찰하여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파는 경제활동 이외의 다른 문화 활동을 하는 이용객들의 여부를 파악하여 전통시장이 문화공간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둘째, 현재 용문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도되고 있는 다양한 행사에 대한 상인들의 의견을 수집 고찰하고자 한다.

셋째, 시장 상인들이 사용해 온 물건을 통해 그에 얽힌 이야기를 듣고, 이를 모아 시장 한복판에서 아카이브 전시를 하는 상인 중심 문화콘텐츠를 시도함으로써 시장 상인의 생각 속에 내재되어 있는 전통시장 재생에 관한 의견을 파악한다.

대상은 '배추언니'채소가게, '튀김집', '우리농산'방앗간, '라인미용실', '맛나식당', '영심컴퓨터클리닝', '어사출도', '한진농산', '용문수산', '어머니의 손맛 소머리국밥집' 등 10여 곳의 상인들과 청년 상인으로 하였다.

아카이브 전시는 흙, 배추, 우마, 수동고데기, 칼, 꼬챙이, 재봉틀, 주전자, 금가위, 후라이팬, 깨 식히는 판 등, 대부분 시장 상인들이 애착을 두고 있는 물건으로 하였는데, 이들은 계속 사용중이거나 판매 중인 경우가 많아, 물건을 직접 전시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 물건의 사진을 전시하는 것으로 진행하였다.

IV. 연구 결과 및 고찰

용문시장 이용객들의 행태를 관찰한 결과, 대부분 식자재를 구입하는 등 단순한 경제활동 후 시장을 떠났으나, 다리가 불편한 노인분들은 시장에 놓인 벤치를 이용하여 서로 대화하거나 상인들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그 이외의 특별한 주민 간의 교류나 문화 활동은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장 뒤편에 있는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 공간을 특별한 행사 때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주민들이 함께 사용하고, 잠시 머물며 소통할 수 있는 오픈된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상인 인터뷰 결과, 상인 대부분이 과거 청과물 시장이 이전하기 전 성행했던 용문시장의 모습을 그리며, 현재 점차 쇠퇴해 가는 시장에 대해 안타까움을 갖고 있었다. 또한, 시장 안에서의 영화촬영, 문화축제, 각종 행사 등으로 인해 지역 주민에게 시장을 알리고, 어린아이를 동반한 가족들이 함께 용문시장을 방문하여 시장 활성화를 높이는 동시에, 젊은 학생들과 소통하고 만날 기회가 있다는 것에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이는 일시적인 효과일 뿐 장기적으로는 시장 활성화에 끼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의견도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로써 현재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시장 내 문화행사는 지속하여야 할 것이나, 꾸준한 방문과 매출을 올릴 수 있는 행사를 개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가족 구성원이 다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주말에 상인들이 정성을 다해 만든 음식을 먹으며 가족들과 장을 보고 대화를 나누며 시장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 활동을 위한 주기적인 행사를 개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아카이브전시를 통해 상인들의 이야기를 모으는 과정에서 몇 십 년 동안 장사를 하면서 정이 들어 시장을 떠날 수 없는 용문 시장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었다. 대부분의 상인은 본인이 직접 밭로 뛰어 민을 만든 곳에서 식자재를 구매하고, 하나하나 정성 들여 조리하며 가공하고 있어 그들이 파는 식자재, 음식, 물건 등에 대해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지금은 보기 힘든 오래된 물건, 전통적인 방식으로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긍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수공적인 정성이 묻은 안전한 식품을 팔고 있다는 등 시장상인들이 생각하는 자신의 가게만의 장점과 자부심을 표출한 홍보를 통해 전통 시장에 대한 신뢰와 이미지 향상과 전통시장에서만 볼 수 있는 흙, 저울 등의 물품을 활용하여 전통문화 체험장으로써의 특성을 부각한 재생방안 등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로써 시장에 대한 믿음 향상과 함께 상인이 주체가 되는 지속 가능한 시장 활성화가 가능해질 것이고, 동시에 주민들의 사회문화적 공간, 지역사회의 경제를 이끌어가는 중심이 되는 시장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아카이브전시를 통한 연구 방법은 자료도출을 위한 수단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카이브 전시의 시도가 상인들의 정체성과 긍지를 높여주어 역량을 강화하였으며, 시·구가 아닌 상인이 주도하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작은 시도가 되었다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1. 자이미 레르네르(2017) 도시침술. 푸른숲.
2. 구혜경(2016) 전통시장 활성화와 상인의 정체성, 전주 남부시장을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3. 서권복(2017)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한 도시재생 방안, 세명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4. 박수빈(2019) 문화예술을 통한 전통시장 재생사업 사례연구, 인천 송의 평화시장을 중심으로, 성공회대학교 석사학위 논문.